

## 코로나로 인한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 분석: 교육, 기회인가? 불평등 통로인가?

양 정 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 시대를 포함한 각 가구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소비한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추이를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 매 년도마다 전국의 약 2,000여 가구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62.6만원까지 늘어났으며 사교육비 지출 5분위 배율은 10.6배로 크게 격차가 확대되었다. 사교육비 양극화 지표인 다극화 지수는 2001년에 0.2308에서 2020년에 0.2509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고, 지니계수도 비슷하게 2001년에 0.3778이었다가 2020년에 0.4186으로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신화와 선진국가로 정식 인정받는 최근 성과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은 입시혼란, 자사고 폐지논란, 유치원 지원갈등, 코로나 팬데믹 학교봉쇄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갈망과 열정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던 한국교육이 서서히 그 성장동력을 잃고 배회하는 모습이란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법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든다.

특히 지난 조국사태로 인해 공정과 정의의 요구가 교육현장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교육현안 중 가장 민감한 입시제도와 직접적인 논란이 된 조국사태로 일반인이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10여년전 한 가족이 집단적으로 자녀의 대입기록이나 입시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료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대학에 제출한 부분이다(강양구 외, 2020; 강준만, 2009; 조국, 2021).

최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우수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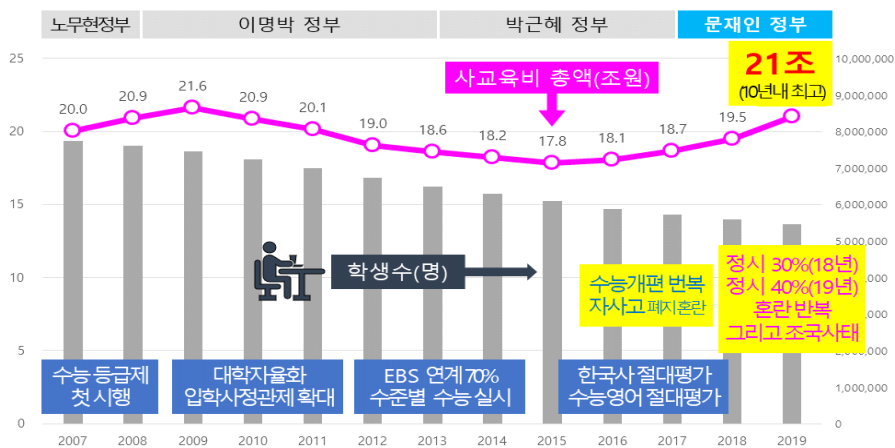
\* 성균관대학교 교수

적인 사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논란이다. 아무리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길게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교육제도를 한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교육분야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학교봉쇄를 비롯해서 전면적인 온라인 비대면 수업상황은 한번도 교육현장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 양극화이다. 이전에도 사회 양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육 양극화 연결되더니 이제 코로나로 몇 년간 고생하게 되면서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학원 등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교육비 양극화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은 사회이동을 위한 계층사다리의 역할로서 기회의 통로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교육 양극화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지는 교육이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통로로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양정호, 2015).

### 사교육비 역대 정부별 추이 및 주요 입시정책 변화



[그림 1] 사교육비 역대 정부별 추이 및 주요 입시정책 변화(한국대학교수협의회)

특히 사교육비는 문재인 정부이전에는 줄어들다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 2019년에 21조로 역대 최고 사교육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2020년에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18조 6천억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교육비에 지출한 학생들은 역대 최고인 월평균 43만 4천원을 사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통계청·교육부, 2021).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는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사교육비 양극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종단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20년에 코로나 부가조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20년 동안 동일가구의 사교육비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추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격차를 양극화 측정지수인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이를 분석하려고 하며, 국내에서 장기적인 사교육비 추이 자료를 수집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매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2020년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특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가구의 자녀당 월간 사교육비, 사교육종류, 사교육 횟수, 사교육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교육 활동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 도시가구의 사교육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재수생을 포함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 가구만을 선택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각 년도마다 2000가구내의 가구자료를 이용하였다.

### 2. 사교육비 변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도마다 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항목 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_님 닥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에서 학원 또는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의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구내 자녀수, 사교육 형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가구가 소비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득분배 불평등의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다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를 이용해 사교육비 양극화를 분석하였다(신동균, 2005; 양정호, 2008; Duclos, Esteban, & Ray, 2004). 간단히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극화 지수는 Duclos, Esteban 그리고 Ray(2004)가 개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P_{\alpha}(f) = \int \int f(x)^{1+\alpha} f(y) |y-x| dy dx \quad (1)$$

식 (1)에서  $x, y$ 는 각각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이고  $\alpha$ 는 동질성 함수의 중요도 또는 다극화 지

수의 민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로서 0.25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상수이다. 최근 경제학과 사회복지학, 그리고 사교육비 분석에서 다극화 지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지니계수와 다극화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DAD 4.6 프로그램(Duclos, Araar, Fortin, 2010)과 Stata 17 DASP 패키지를 비롯해 SPSS 28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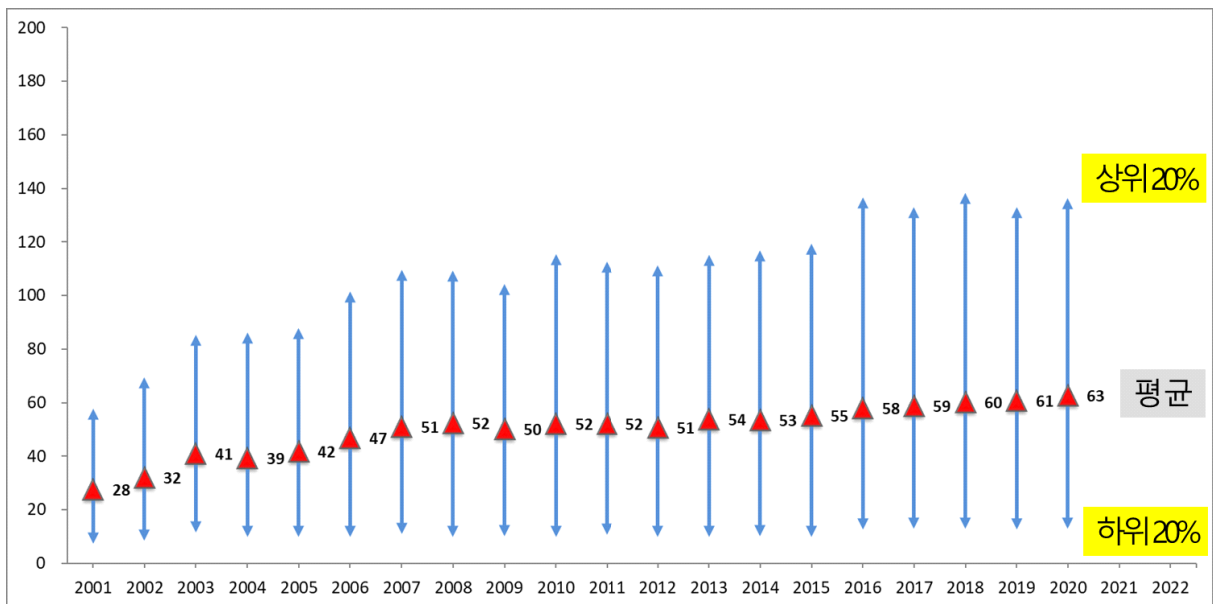
#### 1. 사교육비 지출 분포 추이

지난 20년간의 사교육비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표 1>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각 가구가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추이를 가구별 평균과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 5분위 분포도 살펴보았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01년에 2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62.6만원으로 20년동안 2.3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지출의 기술통계치 및 5분위 분포(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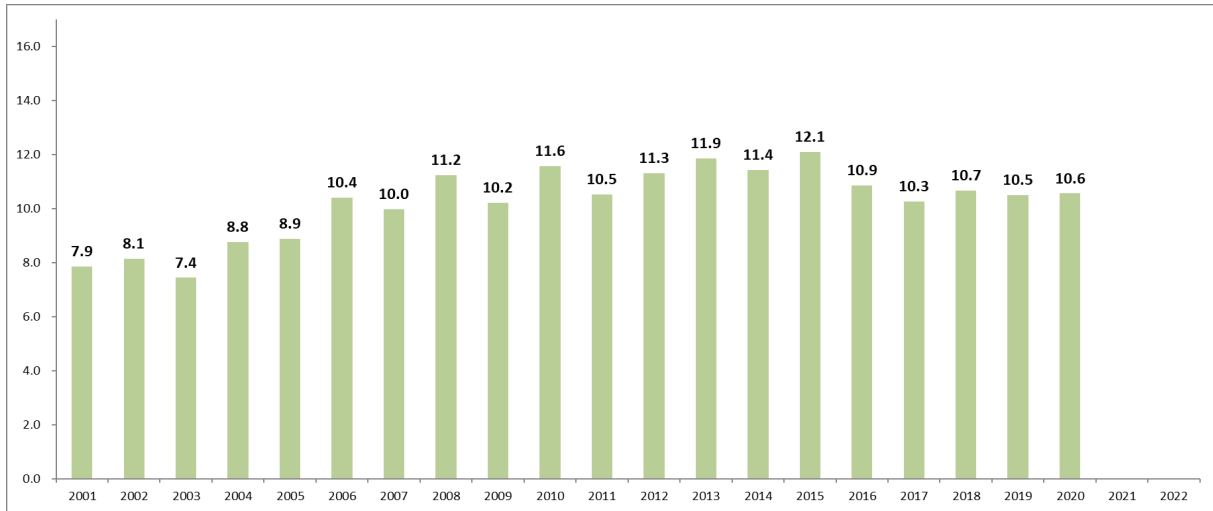
연도	조사 차수	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5분위 분포					5분위 배율 (B/A)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	
2001	4차	1,367	27.5646	21.8534	7.3632	15.0332	21.7312	31.7727	57.8673	7.9
2002	5차	1,394	32.0187	30.0573	8.5207	17.7098	24.7049	33.8361	69.3848	8.1
2003	6차	1,477	40.8931	32.0931	11.4904	22.0027	32.0605	45.2186	85.5035	7.4
2004	7차	1,512	39.2223	32.2851	9.8267	19.8578	29.7652	43.8604	86.1670	8.8
2005	8차	1,497	41.6450	32.2099	9.8712	21.3540	31.8929	45.2126	87.7556	8.9
2006	9차	1,523	46.8497	38.1530	9.7535	22.1125	34.5722	50.9728	101.5559	10.4
2007	10차	1,539	51.0686	46.8339	11.0082	23.0735	35.7537	54.4706	109.7608	10.0
2008	11차	1,608	52.4319	44.1271	9.7331	25.4538	38.7893	55.3858	109.3575	11.2
2009	12차	1,862	50.1586	38.4312	10.2103	25.1744	39.6009	56.3461	104.2641	10.2
2010	13차	1,881	52.0950	41.5644	9.9635	25.8339	39.2580	58.0949	115.4062	11.6
2011	14차	1,802	52.0572	40.7397	10.7177	25.7730	39.8205	58.9071	112.7454	10.5
2012	15차	1,787	50.7465	39.7992	9.8343	25.3829	39.6406	60.0701	111.2421	11.3
2013	16차	1,717	53.6631	43.4941	9.7188	25.1949	43.0277	63.7338	115.1742	11.9
2014	17차	1,692	53.3475	44.8658	10.2349	25.6165	40.0674	59.9211	117.0130	11.4
2015	18차	1,723	55.1588	44.8183	9.8749	25.7512	42.7843	63.3663	119.4067	12.1
2016	19차	1,733	58.0037	55.2996	12.5819	29.3323	45.2020	67.6402	136.6923	10.9
2017	20차	1,797	58.7713	52.1122	12.9812	29.7678	45.0643	66.9598	133.1658	10.3
2018	21차	2,763	60.2699	57.5184	12.9757	29.5778	45.0854	67.9140	138.3004	10.7
2019	22차	2,695	60.8158	50.9319	12.6668	29.8855	46.9757	68.2234	133.0718	10.5
2020	23차	2,484	62.5566	51.4783	12.9113	29.9368	46.4600	70.8971	136.3371	10.6

또한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정도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한 5분위 사교육비 지출 분포를 지난 20년 동안 추이를 분석해보면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5개 상위 및 하위 집단별로 사교육비 추이 격차는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구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볼 때, 사교육비 지출 하위 1분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 상위인 5분위는 경제여건이나 사회불안과 상관없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있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투자한 금액만큼 자연스럽게 학력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거나 학력대물림 현상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통해 더욱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연결고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분포

사교육비 지출 하위인 1분위와 상위인 5분위의 지출 격차를 지난 20년간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2001년에 7.9배였다가 2015년 12.1배로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진 후 지금까지 11배를 차이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코로나로 학교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현금자산 보유자의 증가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상위집단의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사교육비 지출 하위집단은 여러 경제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학교가 팬데믹 상황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저소득층 집단의 자녀들은 학력격차 확대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교육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이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이다.



[그림 3]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5분위 배율

## 2. 사교육비 지출 격차 양극화 추이 :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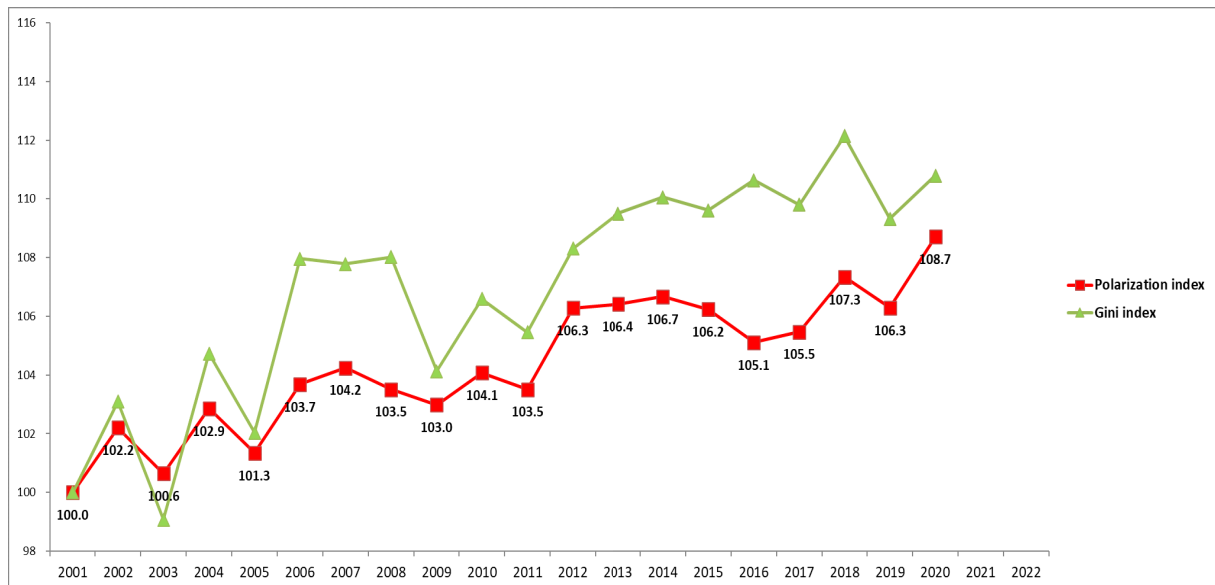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좀더 엄격한 지표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양극화 지표로 주로 이용되는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이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다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추이(2001-2020)

연도	조사 차수	다극화 지수( $\alpha=0.5$ )			지니계수			다극화 지수 비율 (2001=100)	지니계수 비율 (2001=100)
		추정치	95% 신뢰구간		추정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2001	4차	0.2308	0.2231	0.2385	0.3778	0.3599	0.3957	100.0	100.0
2002	5차	0.2359	0.2255	0.2464	0.3895	0.3663	0.4128	102.2	103.1
2003	6차	0.2323	0.2241	0.2404	0.3743	0.3572	0.3915	100.6	99.1
2004	7차	0.2374	0.2291	0.2456	0.3957	0.3780	0.4134	102.9	104.7
2005	8차	0.2339	0.2260	0.2418	0.3855	0.3694	0.4016	101.3	102.0
2006	9차	0.2393	0.2317	0.2469	0.4079	0.3916	0.4241	103.7	108.0
2007	10차	0.2406	0.2303	0.2508	0.4072	0.3853	0.4290	104.2	107.8
2008	11차	0.2389	0.2300	0.2479	0.4081	0.3881	0.4281	103.5	108.0
2009	12차	0.2377	0.2312	0.2442	0.3934	0.3792	0.4076	103.0	104.1
2010	13차	0.2402	0.2323	0.2482	0.4027	0.3860	0.4194	104.1	106.6
2011	14차	0.2389	0.2310	0.2468	0.3984	0.3817	0.4151	103.5	105.5
2012	15차	0.2453	0.2383	0.2523	0.4092	0.3944	0.4241	106.3	108.3
2013	16차	0.2456	0.2377	0.2535	0.4137	0.3968	0.4307	106.4	109.5
2014	17차	0.2462	0.2375	0.2548	0.4158	0.3973	0.4343	106.7	110.1
2015	18차	0.2452	0.2374	0.2529	0.4141	0.3972	0.4309	106.2	109.6
2016	19차	0.2426	0.2329	0.2522	0.4180	0.3957	0.4404	105.1	110.6
2017	20차	0.2434	0.2341	0.2527	0.4148	0.3943	0.4354	105.5	109.8
2018	21차	0.2477	0.2366	0.2588	0.4237	0.3998	0.4476	107.3	112.1
2019	22차	0.2453	0.2374	0.2532	0.4130	0.3962	0.4298	106.3	109.3
2020	23차	0.2509	0.2426	0.2592	0.4186	0.4018	0.4354	108.7	110.8

지난 20년간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해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추이를 추정해 보면, 양극화 경향이 단순히 기술적 추이를 넘어서서 좀더 정교한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에서도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극화 지수는 2001년에 0.2308로 가장 낮았고, 2020년에 0.2509로 가장 높게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도 비슷하게 2003년에 0.3743이었다가, 2018년에 0.4237로 가장 크게 추정된 이후 지금까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좀더 시각적으로 양극화 추이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2001년도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양극화 격차를 살펴본 것이 [그림 4]이다. 전반적으로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가 모두 200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점차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다극화 지수는 2001년에 비해서 108.7 배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도 110.8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단의 사교육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때 급속하게 양극화 지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사교육비 감소를 핵심의 제로 설정하지 않고 수능변경이나 고교학점제 도입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사교육비 양극화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인 다극화지수와 지니계수 비율(2001=100) 추이

### 3. 코로나 대응 자사고 대 일반고 격차 비교

2020년은 한국교육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동안에도 문을 닫지 않던 학교가 수개월에 걸쳐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육과 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 전면 도입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와 연결지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교육이 얼마나 코로나와 같은 외부 위협요인에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지 알 수 있으며, 학교수업에만 의지하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경험이었을 것이다.

코로나와 사교육비 양극화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이 파악과 더불어 학교의 위기상황에서 학교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공교육이 든든히 뒷받쳐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자사고 폐지논란의 과정을 통해 일반고와 자사고 및 자공고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부가조사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현황도 조사가 이루어져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 자체의 경쟁력도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3>은 학교의 대응능력,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형태,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가정내 학습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관리능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 학교의 위기 관리능력은 자공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확대된 2020년 3월 상황을 보면,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자녀가 집에 계속 있게 되는 문제와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따라가는 부분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서울지역 자사고와 일반고의 코로나 위기 대응 능력 비교(2020)

연도	전체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	일반고
코로나 위기 관리 학교 만족도(부정 0, 긍정 10)	6.96	7.10	7.75	6.81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상황 의견(부정 1, 긍정 5)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매우 벅참	3.25	3.70	3.00	3.20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3.76	4.10	3.88	3.69
자녀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기회	2.79	2.60	2.75	2.83
자녀가 집에서 학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매우 벅참	3.38	3.60	3.38	3.33
돌볼 사람이나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움	2.24	2.70	1.63	2.24
코로나 위기상황 자녀의 학습형태(복수 응답, %)				
이메일로 교육자료 받음	3.7%	4.8%	9.1%	2.9%
교육자료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업로드 됨	4.5%	0.0%	9.1%	4.9%
교육자료를 우편/소포로 받음	0.0%	0.0%	0.0%	0.0%
온라인 강의(이미 올려져 있는 동영상)를 시청	38.1%	23.8%	45.5%	40.2%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	24.6%	33.3%	27.3%	22.5%
부모가 직접 지도	0.0%	0.0%	0.0%	0.0%
학원을 보냄	23.9%	33.3%	9.1%	23.5%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함	3.7%	4.8%	0.0%	3.9%
변화없음	1.5%	0.0%	0.0%	2.0%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학교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습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본 결과, 일반고의 학생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청에 더 의존하게 되는 반면에 자사고와 자공고에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교 이외에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가 문을 닫고 오프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학교 이외의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변화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일반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사고와 자공고는 발빠르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환경을 구축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수업에 대한 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이다. 지난 코로나 발생이후 일반 공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나 대책마련을 기다리며 손놓고 기다리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자사고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한 부분에서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에도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IV. 논의 및 결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속에서 학교의 중요성은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매년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단순히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에 머물지 않고, 사교육비 지출 상하위 집단간에도 격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차이가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교육양극화로 연결되는 문제는 사회전체로 봐서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닫게 되면서 학력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학습결손이 몇 년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발생하게 되는 평생동안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악순환으로 자녀교육에 부담을 느끼면서 저출산이 더욱 확대된다면 국가 전체로도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 된 것 같다. 현재와 같이 학교의 경쟁력보다는 개별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및 관심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면, 사교육비 양극화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제 사교육비 문제 해결과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더욱 신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수업개선과 학교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에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새로운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들은 자사고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이었다. 누가 해주겠지하면서 다같이 손놓고 관료시스템을 통해 지시와 대책이 전달되기만을 기다리는 공교육 시스템으로는 다

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교육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제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현실화되면 교육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전반의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 양극화 해결을 통해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교육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사교육비 양극화 후속연구를 통해 소득수준 격차가 사교육비 양극화로 연결되는지와 학업성취나 대학진학,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강남같은 거주지 격차심화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대안마련을 위해 좀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2020).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서울: 천년의상상.
- 강준만(2009). *입시전쟁 잔혹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교육부(2021).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 김영철·양승실·김영화·이주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19(3), 149-180.
- 김중엽·정민승(2019). *입시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KLIPS Research Brief*, 4, 1-11.
- 신동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미발표 논문.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213-234.
- 양정호(2015). “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 *국회 세미나 자료집*.
- 양정호·한희진(2018).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6), 3139-3153.
-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우천식·이경영(2005). *교육투자 기회 격차의 구조와 해소방안. 인적자원 협력망 워크숍 발표자료*.
- 이돈희·곽삼근·김재웅·박동준·양정호·이명희(2015). *한국의 교육 70년*. 경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학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르게 보기*. 서울: 원미사.
- 조국(2021).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서울: 한길사.
- 통계청·교육부(2021). 2020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세종: 통계청·교육부.
- Bray, M.(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Paris: UNESCO.
- Duclos, J.-Y. & Araar, A.(2005). *Poverty and equity: Measurement, policy and estimation with DAD*. Quebec, Canada: Universite Laval.
- Duclos, J.-Y., Araar, A., Fortin, C. (2010). *DAD : A software for distributive analysis/analyse distributive*. MIMAP programme, Universite Laval, Quebec, Canada.
- Duclos, J.-Y., Esteban, J., & Ray, D.(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Seth, M.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